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2주일

2021. 01. 17. (나해) 제2251호

대구주보



구암성당 | 그림 _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1사무 3,3L-10,19 **화답송**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제2독서** 1코린 6,13 C-15,7,17-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1,35-42.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찾으시는 하느님, 응답하는 우리

봉곡본당 주임 | 임성호 베네딕도 신부



우리 교구는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구장께서 장기적인 사목 방향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2021년은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고 실천하신 가장 좋은 본보기이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담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느님과 말씀을 선포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봅니다.

1. 예언자적 소명에 대한 응답

오늘 제1독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느님과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과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기쁨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선택은 당위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느님께 대한 마땅한 응답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 말씀 선포를 위해 구체적인 인격을 필요로 하시고 그 소중한 부르심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즉,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회는 그 응답을 마땅히 잘 하여야 할 것이고, 어린 사무엘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2.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일상생활의 생태계를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전개되는 공간에 대한 분석이 포함됩니다. 이 주변 상황은 우리의 인생관과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는 방, 집, 일터, 동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환경을 이용합니다. 주어진 조건의 악영향을 개선하고, 무질서와 불확실성을 안에서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깨달아 환경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력과 관대함은 경탄할 만합니다.” 코린토 교회 상황에서 하느님 자녀들이 처한 사회 환경 차원에서 사도 바오로는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일상생활의 생태계를 구축을 통해 공동체적인 치유의 체험이 되도록 강조합니다.

3. 예수님 제자로서의 응답 : “와서 보아라”와 ‘함께 묵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와서 보아라.”와 동생 안드레아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하느님, “와서 보아라.”라는 말씀을 통해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올 한 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갈 이들을 교회는 원하고 있습니다. **필문**

하와 (창세 2,18-22)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병규 요한보스코 신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남자와 다른, 여자만의 독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느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과 여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름이 하나일 수 있다는 신비를 담은 웅기장이 하느님의 작품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함께’라는 말마디를 운명처럼 지닌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창세 2,18) 사람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아 나선 하느님은 직접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람의 ‘결핍’에서 제 존재를 시작합니다. 깊은 잠(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무의식 상태’를 가리킵니다)에 빠진 사람의 갈비뼈에서 여자의 존재는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외쳤지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창세 2,23)

혹여 ‘갈비뼈’ 이야기를 두고 여자에 대한 비교우위적 관점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무지한 사람은 없을 테지요. 사람은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다. 깊은 잠을 자는 순간에 하느님에 의해 지어진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자신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더 낮고 더 못한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다. 사람의 외침은 하느님도, 여자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아닌 자신에게 외치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나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여자를 바라봅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통해 남자 사람은 제 정체성을 새롭게 되새기게 됩니다. 여자에 대해 전혀 모르되, 어떻게든 제 인식의 확신 안에서 여자를 이해합니다. 여자에 대한 영원한 ‘모름’은 여자와 영원히 하나 되는 제 본디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 말은 ‘이쉬’인데, 여자는 ‘잇샤’입니다. 두 말마디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이되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여정을 떠날 때, 비로소 서로가 서

로에게 알맞은 협력자인 사람으로 거듭나 만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로에 대해 더 알고 더 담비는, 그 앞이 제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타자에 대한 질투와 욕망으로 변질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어갑니다. 여자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말지요. 여자는 ‘결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처럼 더 알아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욕망이 여자를 짓누르고 말았습니다.(창세 3,6)

제 욕망에 휘둘린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창세 3,16) 결핍의 자리를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만들어 갔던 사람의 본디 모습은 욕망과 결핍에 대한 갈망으로 짓눌린 고통과 힘겨움의 ‘주종 관계’로 변질됩니다. 바로 이때,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마치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던 그때의 모습처럼, 아직 하와라는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한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의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그 이름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주종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자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무수한 갈등과 충돌로 늘 시끄럽고 피곤해지는 것은 제 삶의 고유한 본디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사람의 본디 의미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경외와 신뢰의 대상이지 비교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자 이야기는 사람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다움에 대한 이해와 질문은 끝없는 경외와 신뢰에 대한 성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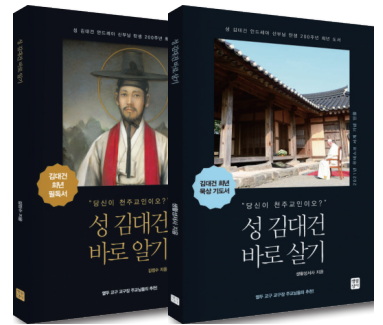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필독서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성 김대건 바로 살기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생활성서사는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고 '2021년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에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의 삶을 오늘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도서'를 출간했다. 『성 김대건 바로 알기』와 『성 김대건 바로 살기』로 출간된 두 권의 도서는, 김대건 신부에 대한 정보와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 그리고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따라 사는 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성 김대건 바로 알기』에는 김대건 성인의 일대기와 그의 행적, 그리고 그 행적이 오늘날에 전하는 의미를 당시의 사료(史料)와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성 김대건 바로 살기』는 김대건 성인의 전 생애와 영성을 스물여섯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된 삶의 감동은 자연스레 삶으로 이어진다. 이 책들은 성 김대건을 바로 알고, 바로 살게 이끌어 줄 것이다.



김정수/생활성서사 지음 |

216/144면 | 세트 20,000원 | 생활성서사

구약성경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구약성경 에세이**

알기 쉽게 풀어 낸 구약성경 이야기

교구 월간지 <빛>에 2년 동안 기고했던 대구가톨릭대학교 강수원 신부의 구약성경에 대한 글을 보완하고 다듬어 엮은 에세이 형식의 구약성경 입문서가 출간됐다. 저자가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따뜻한 문체 속에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담겨있는 『구약성경 에세이』는 신자들이 구약성경을 대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자들이 구약성경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구약성경 배경지식을 다룬 첫머리를 포함해 총 3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독자들 편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성경 안에서 진행되는 이야기 순서에 따라 목차가 구성됐다. 아울러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강수원 지음 |

392면 | 16,000원 | 바오로딸

정철상(丁哲祥) 가롤로는 경기도 광주의 마재(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유명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1801년에 순교한 정약중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부친이고, 1839년에 순교한 유조이 체칠리아 성녀는 그의 계모이며, 같은 해에 순교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과 정정혜 엘리사벳 성녀는 그의 동생들이다.

가롤로는 어려서부터 부친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천주를 공경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천주를 사랑하는 데만 힘썼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가롤로는 부친과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사를 받았다. 또 주 신부는 이후 양근 분원(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으로 가롤로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한편 그 무렵 가롤로는 포천의 유명한 신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가롤로가 20세가량 되었을 무렵인 1801년에 신유박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부친과 숙부들이 체포되어 의금부로 끌려가자, 그는 그들을 따라가 의금부 인근에 머물면서 옥바라지를 하였다. 이를 본 관리들이 그에게 ‘주 신부의 거처를 밀고하여 부친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결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4월 8일 부친이 순교하던 날, 정철상 가롤로는 의금부의 명에 따라 체포되어 형조에서 문초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주문모 신부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의 마음에는 천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생각과 부친의 뒤를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형조의 관리들은 문초를 하는 동안 가롤로의 생각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그를 옥으로 데려가도록 하였고, 그는 한 달 이상을 옥에 갇혀 있어야만 하였다. 그런 다음 최필제 베드로, 윤운혜 루치아 등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5월 14일(음력 4월 2일)이었다.



정철상 가롤로
(? ~ 1801년)

형조에서 가롤로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 내용은 이러하였다.

“너는 천주교에 깊이 빠져, 집안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요사한 스승(즉 주문모 신부)을 보호하려고 송곳으로 찌러도 말하지 않았다. … 주문모를 맞이하여 거처하도록 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불러 모임을 가졌으며, 개나 돼지처럼 행동하면서 인간의 윤리를 무너뜨린 죄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1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담화문

“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
(요한복음 15장 5-9절)

한국천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외 10명이
발표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대구주보 개편 안내!

- 1면 교구 내 본당 소개 - 서원만 베르나르도 그림 (대리구 별 가나다 순으로 연재됩니다.)
- 2면 주일의 말씀 - 신부님들의 강론
- 3면 강수원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 / 교구 사회복지회의 『더불어 사는 세상』
박병규 신부의 『성경 속의 여인들』 / 생태환경 이야기 『보시니 좋았다』
- 4면 『말씀의 터』 - 교구 내 성경 모임 소개 / 『바티칸 소식』 - 교황님 말씀
『문화와 영성』 - 신간, 전시 등 문화 소식 /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 수기
- 5면 『믿음의 길』 - 124위 순교 복자 약전

그리스도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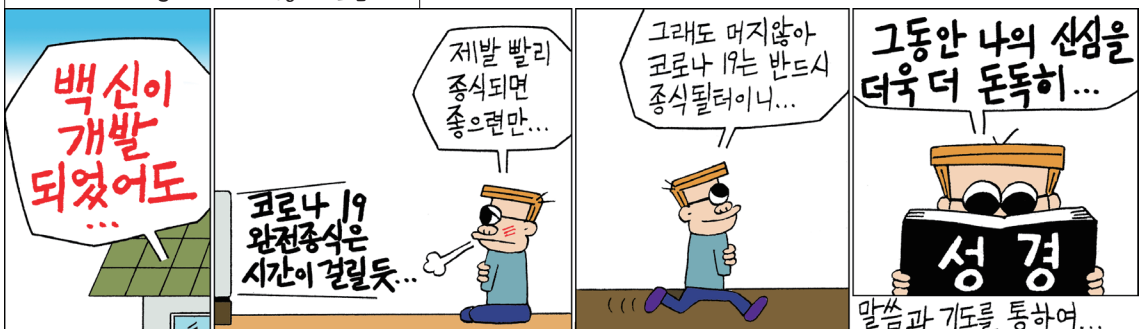


와서 보아라
요한 1, 39

캘리그래피 _ 장성녕 안드레아

코로나19 종식이 머지않은 만큼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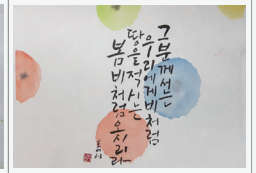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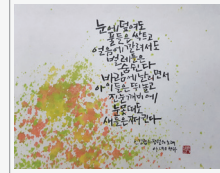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월 18일(월) 11:00 평화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월 23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	----------------------	------------------	------------------------

여성교육관 갤러리1981 전시회 캘리그래피 & 문인화 「소통전」

일시: 2021년 1월 18일(월) ~ 1월 29일(금)

장소: 갤러리1981(교육원 다동 1층 가톨릭여성교육관 내)

작가: 박나현 아녜스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 시대 사회적 소통에 부합하고자 교구에서는 홈페이지와 앱을 비롯해 각종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주요 소식들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홈페이지 | 교구장 및 보좌 주교, 교구 사제단, 교구청 부서 안내, 교구 내 본당, 기관, 단체 등 각종 현황, 주요 소식 등 교구의 모든 정보 수록 ⇨ www.daegu-archdiocese.or.kr

교 구 앱 | 교구장, 보좌주교 동정 및 말씀, 교구 사제 및 본당 정보, 각종 기도문, 매일 미사, 대구주교, 교구의 주요 소식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대구대교구」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카카오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작 앞 ☎ 053-959-7175
010-9597-7175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정구 왕금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늘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여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여역 8분 출구)

25년 전통
천주교 결혼정보회사

거 들 짝

초혼, 재혼, 노블레스

전국 대표전화 1566-6205
wedmate.co.kr

가톨릭피부과
CATHOLIC SKIN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북 대구기동로(대명역) 3교소
신남역(청라언덕역) 9분 출구 척달병원 4층

건강검진은 전인 병원

5대암검진
1대장내시경

대표전화 | 1688-7667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재희(베네딕도) 신부
2011년 1월 23일

성소 | 피정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도회 성소자 초대

일시: 개인 상담 후 결정

대상: 봉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성소 담당, (010)4142-8184

동계성소 피정 취소 안내

중3~고2: 취소

고3~대학·일반 모임: 1.31(일) 14:00

장소: 교구 별관 대회의실

입시반 모임 희망자는 1월 27일(수)

까지 성소국으로 신청: 250-3071

2022년 신학교 입학 희망자는

1월 모임에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행사 | 모임

전인병원 전시회

일시: 1.1(금)~31(일)

장소: 전인병원 3층 갤러리

주제: 예수성심시녀회 감마리아 수녀

숨-영원의 소리2

교육 | 모집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3차: 2.26(금)~28(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신구약의 계약에서 하느님의 구원 체험

접수: 1.17(일)

구약: 창세기부터(오전 목, 저녁 화)

신약: 마르코 복음부터(오전 수)

대상: 신자, 말씀의해 안내자

장소: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거룩한 독서반) / 문의: (010)2512-4627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꽃차, 문인화, 연필초상화, 캘리그래피,

우크렐레,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피아노, 미술심리, 섬유공예, 태극권,

정리수납전문가과정

신청: 254-6115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입학 모집

접수: 1.18(월)~2.3(수)

주최: 사랑의씨튼수녀회 운영 학교법인

상세 전형 일정 학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1)432-9241

가톨릭ON(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일시: 2.15(월)

엘리버드 할인혜택: 1.15(금)~2.14(일)

국내최고저자강의

문의: (02)945-3300 / (010)3092-1108

<http://www.catholicon.co.kr>

채용 | 안내

초전성당 사무장 채용(정규직)

대상: 1종 면허소지자,

PC사용 가능한 분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마감: 1.24(일)

문의: (054)932-8021

가톨릭피부과의원 전문의 채용

58년 역사의 가톨릭피부과의원에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합니다.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

문의: 320-2121 / (010)6653-8022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인 이수윤(소피아), 홍정훈(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청담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주거)
노성형 | 코성형
필라, 보톡스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진료문의 216-7345